

6월의 기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6장 10절>

- 1.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2.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3.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4.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있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이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 이 땅에 동성애와 이슬람 문화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 지진의 피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 아멘 -

DCEM 성회안내

2016년 8월 10, 11일 마카오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을 초청하여 'Blessing Macau Miracle Conference' 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오사카순복음교회,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님께서 후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환, 나인규, 박예림, 순복음정릉교회 조종숙목사, 안희순, 이형춘, 원소선,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010-2726-****, 그리고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외환은행) 예금주 : 디시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하나님의 때와 방법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은 나이가 든 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첫째,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는다. 둘째,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셋째,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만큼 내게는 행복과 성공이 있었다" 다시 말해 평생을 살아보니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며, 삶을 살아보니 일어나고 걸어 다니고 먹고 자고 죽고 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한만큼 하나님은 행복과 성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성공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떨어져 나와 죽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 그 예비한 곳에 들어가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 이마에 땀을 흘려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걸머지고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맡기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인생의 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면에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알고 믿고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수영선수를 받쳐 주듯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다 받쳐 주시고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와 고난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는 양이 되어 믿고 순종만 하면 목자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맡기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인도 하나님의성회 100주년 기념성회

4차원 영성 통해 가난과 절망의 땅 인도 희망으로 바꾸다 30만 명 모인 대대적 성령축제 인도복음화의 비전 품어



인도하나님의성회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성회가 인도 첸나이 최대교회인 뉴 라이프 교회(New Life Assembly of God Church)와 YMCA 대운동장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를 주강사로 6월 8~9일 양일간 개최됐다. 인도하나님의성회(총회장 데이비드 모한 목사)가 주최하고, DCEM(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이 주관한 이번 성회는 '지경을 넓혀라'(SCALE UP)는 주제로 인도하나님의 성회 8000여 교회가 하나되어 100년동안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으로 하나되어 인도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부흥과 헌신을 다짐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지난 1994년 약 150만명이 참석해 인도 개신교 최대 집회로 기록된 조용기 목사의 마드라스(첸나이 옛이름)대성회 후, 22년만에 첸나이를 방문한 조용기 목사는 인도하나님의 성회100주년을 축하하며 4차원의 영성을 통한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6월 8일 첸나이 뉴 라이프 교회에서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첫째 날 세미나에서 조용기 목사는 꿈과 비전을 통해 믿음으로 세계최대의 교회로 성장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사역을 전하며 "나는 58년 전 5명의 성도로 목회를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500명의 성도를 바라보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또한 매일 5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성령과 함께 새로운 사역을 꿈꾸었고, 그 결과 지금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었다"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주시고, 생각을 통해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꿈꾸며 입술로 선포할 때 교회 성장과 인도 복음화의 꿈은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다음날 YMCA대운동장에서는 약 30만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100주년을 축하하는 대성회가 열렸다. 찬양과 워십으로 시작된 성회는 인도를 위한 기도와 100주년 축하케이크 커팅, 순복음강남교회 한국무용단의 공연 후, 인도복음주의 교회의 에스라 수르구남 주교가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 조용기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성도들의 뜨거운 환영 속에 등단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강조했다. 이어 폐영으로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은 간증을 전하며, "전도를 받고 성경을 읽으며 나도 치료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치료받고,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며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삶과 비전이 새롭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용기 목사는 또 "한국도 예전에 가난한 나라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축복 받았다. 예수님이 인도를 사랑하신다. 성령께서 인도를 변화시켜 큰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고 계신다"며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내려 주시기 원하신다. 100주년 성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충만을 받으라"고 선포하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인도 복음화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성회를 주최한 데이비드 모한 목사는 "지난 100년간 인도하나님의성회를 통해 큰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번 100주년성회를 더욱 뜻깊게 하기 위해 세계적인 주의 종 조용기 목사님을 초청했다. 100주년 성회를 계기로 인도하나님의성회는 성령충만의 믿음으로, 2020년까지 2만 5천개의 교회를 개척해 인도 복음화에 더욱 헌신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번 100주년성회에는 성회 장소인 타밀나두주를 비롯해 수도 델리, 케랄라, 콜카타, 하이데라바드 등 인도 전역에서 오순절 성령충만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참석했으며, 이번 성회가 인도복음화를 위한 부흥의 도화선이 될 것을 소망했다.

행복은 나눌 때 온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특별조사관으로 활동했던 사회학자 ‘장 지글러’는 <탐욕의 시대>라는 책에서,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는 이유를 가난으로 인한 영양 결핍과 질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이 지구상에 식량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 이 지상에 음식은 넘쳐나는데 아이들이 굶어 죽는다는 것은 바로 탐욕 때문에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골목골목 다니며 폐휴지를 모아서 기부하는 할아버지도 있고, 구두를 닦아주고 받은 돈 중 동전을 따로 모았다가 기부하는 구두미화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매달 얼마씩 내어 꾸준히 모아 그 돈으로 아프리카에 우물을 설치해 많은 사람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힘들고 각박한 세상이지만 이처럼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마음이 있기에 세상은 따뜻해지고 살맛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1.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게 된다.

생각한대로 인생은 이루어집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패배의식에 잡혀서, 모든 것이 없는 방향으로 이끌려 갑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고 말합니

다.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용감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책임지고 같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뜨겁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이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나쁜 것은 좋게 만들어 줄 것이니 좋은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을 따라 가니까 모든 일이 좋게 되는 것입니다.

2. 꿈을 가지고 미래를 품에 안아라

우리가 꿈을 품고 믿음을 안고 미래를 바라보면, 찬란한 미래가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이미 본 것처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에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이 꿈이 아닙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바라보는 것이 꿈입니다. 직장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직장에 들어간 것처럼 꿈꾸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지 않은 집을 이미 사서 들어가 있는 것처럼 꿈꾸어 보는 것입니다. 몸이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 있는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계획과 꿈을 꾸고, 계산은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계산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분명히 마음속에 품은 꿈을 믿고, 주님이 일해주시실 것을 알고, 주님께 계산을 맡기면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3.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남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는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놀려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 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고, 예수님은 당신의 피와 살을 나누어서 생명을 나누어 주셨고, 보혜사 성령은 당신이 거할 처소를 우리 속에 만들어서 우리와 함께 평안을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평안, 확신,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면 성령이 같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평안이 들어차고 확신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마음속에 불안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이 계속됩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기에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때 성령이 허가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믿고, 긍정적인 선언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늘나라를 왕성하게 하시고, 나누어 주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큰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오늘날도 안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평안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기 목사 6일 순복음동경교회 39주년 기념성회 인도

일본 일천만 구령 운동 39년 세월 속 꾸준한 결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순복음동경교회 39주년 기념성회에서 말씀을 전했다. 이번 성회가 열린 도쿄 아카사카의 산토리 홀(Suntory Hall)은 1986년 설립된 심포니 전용 홀로서 세계적인 지휘자인 카라얀이 ‘음향의 보석상자’라고 할 정도로 일본의 문화와 예술의 자부심과 같은 곳이다. 성회가 열린 지난 5월 6일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복음으로 보석상자를 가득 채운 날로 기억될 것이다.

조용기 목사는 “예수님은 2천년 전의 예수

님이 아니라 지금의 예수님, 미래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의 예수님이다”라며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통해 오늘의 죄가 용서함 받고, 오늘의 추함이 정함을 받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조용기 목사는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 받은 의인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지금 건강을 얻고, 지금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자신을 바라볼 때 변화된 자신을 만나게 된다”고 역설했다.

순복음동경교회, 이영훈 목사 초청 ‘오순절 초대교회 회복예배’

“강력한 성령 역사만이 일본 교회 부흥시킨다”



일본 순복음동경교회가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자’는 취지아래 지난 5월 22일 신주쿠문화센터에서 오순절 초대교회 회복예배를 드리고 일본 복음화 ‘1천만 구령’을 위해 기도했다. 이날 강사로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훈 목사가 초청됐고, 이영훈 목사는 에베소서 전도하는 바울에 대해 기록된 사도행전 19장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 부흥에 있어 성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영훈 목사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했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

았느냐?’는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과 같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었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훈 목사는 “성령 충만은 곧 우리 내면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한다”며 “성령 받을 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고 성령 충만의 열매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일본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일본 전역을 복음

성회를 주최한 DCEM사무총장이자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목사는 “조용기 목사님의 일천만 구령 운동과 선배 목회자들의 노력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 속에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며 이번 39주년 성회와 성회를 기념해 열린 해피콘서트를 통해 일본에 더 많은 부흥과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경환 목사는 축사를 전했고 김성수 목사(여의도순복음송파교회), 김봉준 목사(구로순복음교회), 김용준 목사(순복음도봉교회)를 비롯해 김유동 목사, 안양원 목사를 포함한 순복음일본총회 소속 목회자들도 참석해 스승 조용기 목사를 응원했다.

한편 이번 성회에 앞서 열린 순복음동경교회 39주년 해피콘서트가 진행됐다. 바리톤 이승왕, 소프라노 김인주, 테너 하만택의 아름다운 찬양과 더불어 순복음동경교회 최금숙의 파이프오르간 연주, 중국 바리톤의 신예 천진신, 소프라노 정현진의 찬양이 어우러져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순복음동경교회 연합성가대와 오케스트라가 정현진 지휘자의 지휘 속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동경 밤을 수놓았다.

화시키는 증인이 되도록 간구해야 한다.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로 일본 교회가 부흥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10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오순절날 임했던 불 같은 성령의 임재를 간구했다.

순복음동경교회가 오순절성령강림을 강조하며 예배를 드린 것은 순복음동경교회 담임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 부임 후인 지난해부터다.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는 “순복음은 펜테코스타(오순절)교회이다. 성령의 역사를 간파해서는 교회 부흥을 경험할 수 없다. 당연히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런 의미로 누구보다 성령론에 대해 잘 아는 이영훈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가끼 목사는 “일본에서 부흥하는 교회는 오순절 교회”라며 “우리 교회는 매월 40~50명 새신자가 오고 있다. 일본에서 성도 50명이면 중형교회에 속한다. 매월 교회가 한 개씩 세워지는 것과 같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